北 '목함지뢰' 도발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11일 화요일 제327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0일>

구분	지수	변동
코스피	2003.17	(-7.06)
코스닥	746.34	(-5.15)
금리(국고채 3년)	1.78	(-0.01)
환율(원·달러)	1162.90	(-3.80)

登記情報提供サービス　文字サイズ変更 小 中 大　推奨環境　? 使い方

登記情報取得エラー

エラーメッセージ (対処方法)	:	請求のあった会社・法人等は登記事件の処理中です。登記が完了した後に再度請求してください。
エラーコード	:	3212-000013303-東京BC-渋谷RTS
受付番号	:	2015081059163829

閉じる

10일 오전 법무성 등기부 열람사이트의 L투자회사 9곳(L1·2·3·7·8·9·10·11·12)의 등기조회 결과이다. '청구하셨던 회사 법인등은 등기사건 처리 중 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재청구 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L4·5·6 세 곳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등기발급이 가능하다.

반격 개시

신격호 대표 재직 9개 'L투자'등기 관련 10일 이의신청 접수
日 체류 신동주, 신동빈 대표이사 취임 무효 법적 절차 착수
신격호 명의 도용 등 문제 삼은 듯… 법무성 등기열람 중단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10일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L투자회사'12곳 가운데 L4·5·6을 제외한 나머지 9곳(L1·2·3·7·8·9·10·11·12)에 대해 이의신청 성격의 새로운 변경 등기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변경등기 신청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첨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등기를 신청한 9개 L투자회사는 7월30일까지 기존에 신 총괄회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다. 7월31일 이후로는 신동빈 회장과 공동대표로 등기돼있다.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7월31일자 등기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대표이사가 바뀐 L4·5·6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재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법무성은 전했다.

이들 3개 회사에는 신 총괄회장이 종전 이사로도 등기되지 않았다. L4·5·6은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게 맡겨놓은 상태여서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손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신 회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

법무성은 9개 L투자회사에 대해 등기사건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10일부터 관련 등기 열람과 등본 교부를 중단했다.

신주쿠 등기소에 따르면 이번 변경신청은 일반으로 접수했을 경우 11일 후 등기가 완료되며 긴급한 사항이면 이번 주 중으로 등기가 완료될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9개 회사에 대해서 변경등기 신청이 이날 오전 접수돼 공식적인 검사(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등기부 열람과 발급은 중단됐다. 관련 검토는 짧으면 3~5일, 늦으면 11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일 법무성은 변경등기 신청을 일반신청과 긴급신청 두가지로 나눠 접수한다. 일반신청의 경우 검토기간은 통상 11일이며, 긴급신청은 5일 이내 마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인의 등기열람과 등본 발급 등은 중단된다.

지난달 31일 신동빈 회장이 12개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도 L3·6 등 두 곳은 일반신청을, 나머지 10곳은 긴급신청을 했기 때문에 업무처리 시간에 차이가 났었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달 31일 아버지의 동의 없이 L투자회사 12곳의 대표에 등재한 것에 따른 신 총괄회장의 반격 조치로 보인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대리권 관련 서류와 직인 등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출국 시 "아버지가 동생이 멋대로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해 화를 내셨다"며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성 등기변경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직인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대표이사의 직인은 기존의 대표이사가 법무성에 등록한 직인이어야 하며 위임장은 대표이사 본인의 인감이 필요하다.

앞서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음에도 신 총괄회장의 직인과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이는 문서위조죄에 속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신 전 부회장이 '법적 대응'을 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법조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리인 권한으로 등기취소 소송과 함께 문서위조죄 고소를 할 수도 있다"며 "이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면 롯데가(家) 분쟁은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16면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고려장 작전

한·일 롯데그룹이 신격호(94·사진)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틀 후인 30일 롯데그룹은 신동주(62)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거동과 판단이 어려운 총괄회장을 임의로 동행시켜 신동빈(61) 회장을 해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던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후 각종 보수 언론들도 끊임없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알츠하이머병' 초기라는 진단까지 내놓았다. 이달 4일 츠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신 총괄회장과의 대화를 빌려 신 총괄회장이 정신상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일 롯데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달 27일 '형제의 난' 이전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5월22일 제2롯데월드를 방문해 현장 시찰과 함께 현장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었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여전히 그룹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총기가 여전하다는 입장이었다. 츠쿠다 사장과 신 회장 역시 지난해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은 아버지의 판단임을 밝혔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거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정상이었다가 비정상이었다가 한다"며 "일전에 일본 재계에서 제기된 신 총괄회장의 한정치산 선고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그룹의 입장이 신동빈 회장의 입장은 아니다"며 "단순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력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동빈 회장은 11일 오전 11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16면

/김성현 기자

정치

▲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 폭발"이라고 결론내렸다.

▲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공언했던 **새누리당**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소극적 주주권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칼럼을 통해 "재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용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통일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당일에 북측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려고 했으나 북측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

▲ **롯데건설**이 지난해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서울 중랑구 신내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개매각된다. 매각 예정가격은 약 9725억원이다.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전시장, 회의장, 호텔을 건립하고 국제업무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지원공간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는 야간,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15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참가병원을 모집한다.

▲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록 자료가 개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1950년~199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담은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료를 1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경제

▲ 다음카카오가 30대의 젊은 신임 대표를 앞세우며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대표 체제로 전격 전환했다. 다음카카오는 신임 단독대표로 **임지훈**(35) 현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를 거쳤다.

▲ **삼성전자**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매끄럽지 않은 합병·승계 과정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의 성장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고, 주주권익을 도외시하면서 반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 **포스코**가 중국 충칭강철과 함께 62억 위안(한화 1조1600억원)을 투자해 연 240만t 규모의 강판을 생산하는 합작 법인 두 곳을 세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충칭강철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합작협약(MOA)를 체결했다. 두 법인은 각각 자동차 강판의 핵심 재료인 냉연 강판과 아연도금 강판을 생산한다.

▲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계 기업들의 기념행사가 연이어 파도치고 있다. 한화는 대한민국 방산업체 소임을 다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가장 다양하고 활발하게 광복절을 준비 중이다. 한화그룹을 비롯한 효성과 에쓰오일, 삼성, 현대차 등도 광복절 기념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 롯데그룹이 지속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제2롯데월드를 직접 방문해 시찰을 한 신 총괄회장이 총기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부터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랜드그룹이 중국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랜드그룹은 중화권 유통그룹인 백성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올해 11월 중국에 라이프 스타일 몰 '**팍스 뉴코아몰**'을 선보일 예정이다.

▲ 유통업계가 **한가위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롯데백화점은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청과, 정육, 건강상품 250여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선물 세트를 최대 30%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9월13일까지 추석 대표 선물세트 180여 종에 대한 사전 예약 판매를 시행한다.

▲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올 하반기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진, 에이티젠, 휴젤, 신라젠 등 22개사다.

▲ 롯데그룹 내홍에 연일 추락 중이던 **롯데쇼핑** 주가가 2분기 어닝쇼크 소식에 낙폭을 키우며 신저가를 갱신했다. 전문가들은 롯데쇼핑이 올 하반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은행권**에 '애국' 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들은 광복절 기념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태극기 걸기 동참과 광복 알리기 이벤트 등을 내놓고 있다.

'광복쌀 재배단지'서 올해 첫 벼 수확 경북도와 영주시는 10일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815광복쌀 생산단지에서 올해 첫 벼 수확을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등은 농민들과 함께 콤바인을 타고 직접 벼베기를 했다. /연합뉴스

국제

▲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우델로르**가 소멸되기 전 중국 남부에 물폭탄을 내려 주민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 없다는 과학자들의 주장 뒤에는 **코카콜라**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폭로했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각종 막말에 노골적인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고질적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게 약 400조 원을 걷어 투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지난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숨진 흑인청년 **퍼거슨**의 1주기를 맞아 미국 퍼거슨시에서 열린 집회가 총기 20여발이 발사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한 원전을 11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해 다시 원전국가로 회귀하게 됐다.

신격호, 5월엔 '정상' 7월엔 '비정상'?

롯데그룹측 편의따라 오락가락 형제난 후 갑자기 '이상설' 부각

한정치산 선고 작업설 제기에 롯데 "판단력 부재 지적한 것"

롯데그룹이 지속적으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집무실에서 롯데그룹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제2롯데월드 타워를 직접 방문해 시찰까지 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형제의 난' 이후 순식간에 치매환자로 몰락했다. 일본 재계는 이를 두고 신동빈(60) 회장이 아버지를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려는 작업이라는 설도 제기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나 심신미약 등으로 법률 행위를 할 만한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롯데그룹 인사권 행사 등 모든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라고 말했다.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신 총괄회장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5월 22일 신 총괄회장은 제2롯데월드를 깜짝 방문했다. 당시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롯데마트를 방문해 매장 상태와 품질 가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며 "새로 오픈한 롯데 매장들도 빠짐없이 방문해 보고서가 아닌 눈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 왔다"고 전했다.

또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신 총괄회장은 현장직원들에게 "전망이 뛰어나다"며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좋은 경관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도 했다. 현재 롯데그룹이 주장하는 정신이상설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불과 3개월 전에 현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 시찰을 하고 직원들을 향해 당부 말을 전한 총괄회장이 지난달 27일 신 회장 해임사건 이후로 정신이상자가 된 것이다.

7월 30일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며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측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알츠하이머병' 초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상 치매환자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달 4일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은 신 총괄회장과의 대화에서 신 총괄회장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츠쿠다 사장은 94세(만93세)가 넘은 나이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해임이 신 총괄회장의 결정임을 인정한 것과 상반된 의견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거취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정상이었다가 비정상이었다가 한다"며 "일전에 일본 재계에서 제기된 신 총괄회장의 한정치산 선고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그룹의 입장이 신동빈 회장의 입장은 아니다"며 "단순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력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

日 도착한 신동주, 향후 행보는? 후계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대립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7일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했다. 도착 출구로 나오며 취재진에 둘러싸인 신동주. /연합뉴스

치매·알츠하이머 치료약물 개발 청신호

서울대 정용근 교수팀, 신경세포 상호작용 밝혀내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흔히 말하는 노인성 기억과 이해의 장애, 계산능력 저하, 사고의 빈곤,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치매라 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면서 뇌 조직이 줄고 뇌 기능이 악화되는 증상을 보인다. 뇌졸중, 암, 심장질환과 더불어 65세이상 노인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 정용근 교수는 "치매환자의 60%이상이 알츠하이머를 앓는데 이는 베타 아밀로이드(Aβ)라는 이상 단백질의 비정상적 분출로 뇌신경세포가 사멸하는데서 비롯된 퇴행성질환"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알츠하이머 증상은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만 나타나지만 점차 공간지각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상실된다. 결국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나중에는 고유한 인격이 점차 없어지는데 주변에서 보면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 환각·망상 등의 이상행동을 보일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구체적인 독성 원인과 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히 세포 외부에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신경세포 내부로 독성을 전달하는지 실마리를 찾는 것이 질병이해의 관건이었다.

그런데 정용근 교수의 지도로 감태인 연구원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Fc 감마 수용체 IIB의 농도가 증가한 것에 착안해 베타 아밀로이드와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다. 쥐의 신경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하면 세포막에 존재하는 Fc감마 수용체 IIB의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를 인지하는 수용체로서 신경세포 안으로 독성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 쥐에 이 두 단백질의 결합을 저해하는 펩티드 약물을 처리하면 신경독성과 인지능력 감소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Fc감마 수용체와 베타 아밀로이드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나타나는 신경독성과 기억력 감소가 억제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물요법은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정 교수가 밝힌 것처럼 예방과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을 좋게 하는 약들이 꾸준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PET를 통한 조기 진단과 약물치료를 적절히 시행하면 치매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정 교수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진단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연구결과 알츠하이머의 바이오마커(원인)는 진단 시점보다 최소 10년 전에 나타난다"고 봤다. 이는 치매 증상이 나오기 앞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원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몸과 뇌 관리를 잘해야 한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우리군 당한 DMZ 폭발은 북한군 소행

MDL 넘어와 '목함지뢰' 매설 1967년 이후 48년만에 재발 유엔정전위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 폭발"이라고 10일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형상의 특징이나 아군의 활동 및 폭발물 잔해를 분석한 결과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군을 위해할 목적으로 적이 매설한 게 확실하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DMZ 수색을 위해 소초(GP) 철책을 넘던 김모(23)·하모(21) 하사는 폭발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 조사에서 폭발물의 정체는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확인됐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다. 살상 반경은 최대 2m이다. 북한군은 DMZ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지난 4일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장면. 이 사고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조사단장인 안영호 준장은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의 남쪽 지역은 지뢰 제거를 완료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폭발지점이 우리 측 철책 통문에 가깝다는 점도 고의적 매설의 증거라는 설명이다.

매설 시점은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일 사이가 유력하다.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적의 GP 병력이 지난달 25일 교대했고, 우리 수색대의 작전주기를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1일까지 매설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 준장은 "수거한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소나무로 만든 목함 파편에도 부식 흔적이 없을뿐더러 강한 송진 냄새가 난다. 오래전에 매설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7년 이후 48년 만에 발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합참은 이날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대통령의 재벌 봐주기가 한국 망쳐"

美 유명 칼럼니스트 비판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퍼섹이 재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용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퍼섹은 과거에도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퍼섹은 이날 '또 다른 가정 불화가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삼성·롯데·현대가의 못된 아들·딸들에 대한 관용으로 인해 한국의 병든 현실이 용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롯데가 승계권 싸움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밀어붙일 완벽한 기회임에도 박 대통령의 남은 절반의 임기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과의 협력을 말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2000년 현대가의 '왕자의 난'부터 현재의 롯데 사태까지 한국 재벌에게 변화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능력에 의해 채용되는게 아니라 왕조시대 세습 형태로 어릴 시절부터 길러진다며 그 결과는 파멸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시세의 3배를 주고 한전부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한 일과 삼성이 엘리엇을 누르고 합병을 강행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아들과 딸이 정확히 누구를 마음에 담고 한 말인지 한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코카콜라 돈 받은 과학자들 "콜라와 비만은 무관"

NYT 산학유착 폭로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없다는 과학자들의 주장 뒤에는 코카콜라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과학자들을 동원해 비만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논문들을 학술지에 싣거나 학회에서 발표하게 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유통시키게 했다. 비만과 탄산음료가 무관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과학자들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가 비만과 관련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학자들은 대부분 글로벌에너지균형네트워크(GEBN)라는 비영리기구에 소속됐다. 코카콜라는 GEBN를 통해 과학자들에게 지원금을 대줬다. NYT는 GEBN의 공식 홈페이지의 등록자와 운영자는 코카콜라 본사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의 행위는 과학자들이 소속된 대학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코카콜라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공개하자 들통나고 말았다.

GEBN의 회장인 그레고리 핸드 웨스트버지니아대 교수와 부회장인 스티븐 블레어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2008년부터 코카콜라로부터 400만 달러(약 46억5000만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NYT는 코카콜라가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돼 광고 금지와 과세가 추진되고 콜라 소비량이 지난 20년 동안 25% 감소하자 이 같은 여론전을 편 것으로 분석했다. /송병형 기자

태풍 사우델로르 중국에 물폭탄

14명 사망·4명 실종

올해 들어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사우델로르가 10일 새벽 중국 남부 내륙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됐지만 중국에 남긴 상처는 컸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장성은 전날밤 물폭탄을 맞아 주민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특히 원저우시에 피해가 집중돼 12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이곳에서 나왔다. 피해 대부분이 홍수, 주택 붕괴, 토사유출로 발생했다.

사우델로르는 이 지역에 이틀 반 동안 700mm의 비를 퍼부었다. 지난 120년간 최대 강우량이다.

원저우와 인근 도시에 밀어닥친 물의 높이는 거의 4m에 육박했다고 전해진다. 원저우의 한 주민은 신화통신에 "토요일밤(8일) 비가 쉴새 없이 퍼부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앞에 주차시킨 자동차가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다"며 "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9일 오후까지 저장성 주민 약 158만명이 태풍의 피해를 봤고, 18만8400명이 긴급대피했다. 완전히 침수된 주택이 223채, 손상된 도로가 272곳에 달했다. 경작지의 피해도 4만3600ha나 됐다. 신화통신은 저장성의 경제적 손실이 40억 위안(75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피해가 큰 지역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원저우에만 5만명의 구조대가 나가 있다.

앞서 태풍이 먼저 상륙했던 푸젠성도 501mm의 폭우로 피해가 컸다. 붕괴된 주택이 530채, 주민 1000만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 성도인 푸저우 시내에는 차량들이 물에 잠긴 채 버려져 있다. 경제적 손실이 38억 위안(7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병형 기자

땅 사용료 농작물로 지급, 임대차계약 인정 안돼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건물철거 소송 항소심 승소
法 "협의된 지급방법 아니라 묵시적 계약 성립 안돼"

농작물로 땅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작물이 토지 관리자와 소유자 간에 협의된 지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10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길여(83) 가천길재단 회장이 송모(67)씨와 이모(85)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는 이 이사장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면서 쌀, 고추 등을 경작해 이 이사장에게 보냈는데 종류와 양이 일정하지는 않았다"며 "농작물이 대지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땅 사용료를 돈 대신 농작물로 지급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종류, 양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양측이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 이사장 측에 건물과 대지를 매수했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며 "점유한 지 20년이 넘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85년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의 임야 9만4000여㎡를 매입한 후 송씨에게 토지 관리를 위임했다.

송씨는 앞서 1978년쯤 이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거주해왔고 일부 땅을 개간해 벼농사와 고추농사 등을 지어왔다. 이씨도 1951년쯤 전 소유자에게 쌀 한가마니로 건물 등을 사들여 거주해왔다.

이 이사장은 2009년 토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 송씨와 이씨 등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씨는 매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쌀과 고추 등을 지급해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1986년부터 매년 쌀 80kg짜리 4~10가마와 고춧가루 4kg짜리 6관 상당을 이 이사장에게 보냈다.

이씨도 20년 이상 해당 건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토지 일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는 매년 농작물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했고 이 이사장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토지 사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됐다"며 "이씨도 이 이사장이 소유권을 가진 1985년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년 대지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해 이 이사장은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울산 태화강에 나룻배 떴네' 울산시 남구는 남구 태화강전망대와 중구 십리대숲 사이 130m 구간을 오가는 나룻배 '남산호' 운항을 10일 시작했다. 뱃사공 2명과 승객 10명 등 12명이 탈 수 있는 이 배는 뱃사공이 줄을 잡아당겨 움직이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국내 조선족, 필로폰 '운반책' 사례 급증

국내에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의 '운반책'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조선족 필로폰 사범은 125명으로 2013년 63명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조선족은 109명으로 조선족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밀수입된 필로폰 42.1kg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0.8kg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택배를 이용하거나 구두 앞부분이나 쇼핑백 바닥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는 식이었다.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일대가 중국 내 필로폰 최대 집결지인 베이징과 인접해 구매가 쉽고,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린다는 점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국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해 필로폰을 밀수한 조선족 22명을 적발,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과 사법공조 등을 통해 나머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선족 마약조직이 거대화되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선족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출입국이 빈번한 조선족 가운데 우범자를 선별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한·중 마약 대책회의를 신설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차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다가구주택 '임차권 순위' 고지 안한 중개인, 배상 책임

法, 원고도 이용현황 비교·검토 안해… 50% 배상책임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의 순위 배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이후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보증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으며, 박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제대로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홍원 기자 hong@

마약 청정국 지위 '위협'

상반기 마약사범 11.8% 증가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5000명을 넘어서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통계를 담아 펴낸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13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9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나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줄곧 1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다 2002년 대규모 단속을 통해 마약 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을 적발, 이 중 162명을 구속한 이후 2003년부터는 7000명 선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부터 9000명선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한해 적발된 사람은 9742명이었다. 1만명 선 접근이 코앞에 다다른 셈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간 압수량도 2013년 66.2kg에서 2014년 72.6kg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마약사범과 압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수입 증가와 신종마약류 확산을 꼽았다.

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의한 필로폰 밀수·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 마약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제수화물과 우편물 검색을 강화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필로폰 밀수 등 공급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미란 기자

법무부 '재벌 살리기' 나서나

사면대상 심사·의결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수를 포함한 대상자 명단이 확정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면권 엄격 제한' 공약을 스스로 파기,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경제인 살리기'에 나서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실시에 관한 대상자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에는 김주현 차관과 안태근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 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초범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개인회생·파산자, 담합이 적발된 입찰 참여 제한 건설사 등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특사에 강력범이나 비리 정치인 등의 사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기업인 사면이다. 심사위원들도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를 받은 기업 총수들이 곧바로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특사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최태원 SK 회장은 2008년에도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두 달 만에 사면된 뒤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정권에서 두차례 사면을 받았지만 배임·횡령 등으로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면의 명분으로 쓴 경제 살리기가 오히려 경제 질서 훼손의 기회를 가져다준 셈이다. 경제 살리기가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

경제 살리기를 빙자한 특사 오·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2008년 법무부 산하에 심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자문과 권유의 기능만 있는 상태다. 심사위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심사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회의록은 사면법 제10조에 따라 5년 후 공개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명단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명단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복절 특사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효력은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광복70주년 태극기 달기 운동 기념 행사 한국자유총연맹과 시민들이 1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미래 광장에서 '광복70년, 나라사랑 인천사랑 태극기 달기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대형 태극기 게양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法,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한 일당 "집유"

PC 원격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주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2000만원, 12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조씨는 포털 업체들이 검색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설정한 'IP 필터링' 조치를 피하려고 전국에 100여대의 PC를 설치하고,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마치 400여대의 PC가 구동되는 것처럼 포털 서버가 인식하도록 꾸몄다. 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각 PC에 설치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검색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의뢰했다. 조씨는 미리 꾸며둔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 업체명과 함께 관련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게 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우선순위에 오르거나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5000여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20만여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도록 했다. 또 의뢰받은 업체명을 포함한 2만2000여건의 게시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홍원 기자

'병합 첫 재판' 이규태, 클라라 협박 부인

李 "잘 되게 하려고 한 것"

이규태(65·사진)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잘 되게 하려는 취지였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와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럴 더라"며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맥락을 보면 협박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면서 관련 재판이 병합됐다.

이밖에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바이오株, 하반기에도 IPO 열풍 계속되나

<기업공개>

장래성·대외적 상황 긍정적… 향후 시장도 더 커질 것

| 마켓인사이트 |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만 22개사다. 이 가운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아이진, 에이티젠, 휴젤, 신라젠 등이 꼽힌다.

특히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2위인 '휴젤'에 대한 관심이 높다. 휴젤은 보톡스, 필러 등 생물학적 제제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국내 보톡스와 필러 시장이 수년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여러 종류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향후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에이티젠'은 세계 최초로 암에 대한 사전진단 키트를 개발해 상품화한 기업이다. 기존의 건강검진 센터에서 제공하는 암 진단과는 달리 높은 정확도의 사전 진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바이오 기업들은 장래성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상황도 긍정적이다. 초기 기업 투자자금인 벤처캐피털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이오 분야 투자 규모는 2928억원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올해는 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자금이 3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공개(IPO)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만약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 기업의 주가수익배율(PER)이 현재처럼만 진행된다면 새내기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명함을 내민 바이오 기업들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올해 상장한 코아스템, 경보제약, 펩트론 등은 주가가 공모가 대비 최대 300% 가까이 상승했다.

노경철 SK증권 연구원도 "올해 국내 바이오 상장 기업이 모두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100%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IPO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면서 "향후 바이오 IPO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바이오 부문의 IPO 수익률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IPO 수익률 1위는 42.8%에 이른 헬스케어가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기업을 공개한 경보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바디텍메드, 케어젠, 휴젤의 경우 2015년도 영업이익이 200억원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매도에 2000선 턱걸이

사흘째 하락 마감 기록
코스닥, 닷새만에 하락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사흘째 하락 마감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7.06포인트(0.35%) 하락한 2003.17을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3억원, 37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669억원 순매수해 간신히 2000선을 지켜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증시가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우려로 하락한 소식에 장 초반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며 낙폭을 확대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했다. 종이목재(-3.16%), 화학(-2.76%), 기계(-2.36%) 등이 크게 내렸고 건설업, 비금속광물, 서비스업, 증권 등도 1%대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음식료업(3.94%), 은행(1.99%), 통신업(1.52%) 등은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신한지주, 기아차 등은 강보합 마감했고 삼성에스디에스(-5.21%), 롯데케미칼(-6.44%), 롯데쇼핑(-8.50%) 등이 크게 내렸다. KCC는 2분기 어닝쇼크 여파에 15.13%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도 외인과 기관 순매도에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5.15포인트(0.69%) 내린 746.34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7억원, 11억원어치 처분했고 개인은 76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3.05%), 기타제조(-2.93), 종이목재(-2.23%), 정보기기(-2.08%) 등의 낙폭이 컸다. 반면 운송, 인터넷, 음식료담배 등은 1%대 상승했다.

시총 상위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다음카카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이 2%대 올랐고 디지털대성(-6.18%), 아진엑스텍(-13.14%) 등이 실적 부진 등으로 급락했다. /김보배 기자

롯데쇼핑株 '추락'… 어닝쇼크+불매운동

2분기 영업이익 35.3% 떨어져… 52주 신저가 경신
백화점·할인점 매출 부진… 임차료 등 판관비 증가

롯데그룹 내홍에 연일 추락 중이던 롯데쇼핑 주가가 2분기 어닝쇼크 소식에 낙폭을 키우며 신저가를 갱신했다. 전문가들은 롯데쇼핑이 올 하반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反)롯데 정서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면서 투자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8.50%(1만9000원) 내린 20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0만3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02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3% 줄었다고 지난 7일 장 마감후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 늘어난 7조4513억원, 당기순이익은 61.6% 줄어든 957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주력 사업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부문을 포함해 실적 호전이 기대되던 롯데하이마트와 편의점 사업 모두 실망스런 결과를 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4~5월 소비경기가 좋아지며 백화점 업황이 호전됐으나 6월 메르스 발생으로 경기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오픈한 점포의 임차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수익성이 대폭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이어 "롯데마트는 매출 부진과 신선식품 매입 구조 변경에 따라 매출원가가 상승,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며 "해외부문 영업이익도 전년 같은 기간 240억원 손실에서 올해 330억원 손실로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롯데쇼핑에 단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영향으로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분기 기존점 신장률이 각각 2.5%와 4.5% 역신장했고 해외부문도 중국 할인점의 역신장으로 적자 규모를 축소하지 못했다"면서 목표가를 27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김태홍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사업부의 신규 출점과 임차료 부담이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편의점과 하이마트 사업부를 제외하고는 확연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최근 롯데그룹 내홍사태 역시 롯데쇼핑의 영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목표가를 23만5000원까지 내렸다.

이밖에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신영증권, HMC투자증권 등도 롯데쇼핑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롯데쇼핑 주가는 지난달 말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깜짝 반등해 25만8000원까지 치솟은 이후 이날까지 20.73% 급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8조1246억원에서 6조4399억원으로 1조6847억원이 줄어들었다. /김보배 기자 bobae@

메리츠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개설
7번째 초대형 거점점포

메리츠종금증권은 7번째 초대형 거점점포인 도곡금융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에 한현철 전무를 입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전무는 대우증권 WM클래스 도곡센터장,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대치센터장 등을 거쳤다. 주식 브로커리지에 강점을 지닌 금융투자업계의 대표 프라이빗뱅커(PB)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도곡금융센터는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KRX '금시장 무료설명회' 연다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 투자에 관심있는 서울·부산·광주 지역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선 시장 현황, 주요 거래제도 및 시장 참가방법 등 KRX금시장 전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 금시장 전망·투자전략도 제공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한국거래소 금시장 홈페이지·전화(051-662-2762~6)를 통해 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금융권, 광복 70주년 '애국심마케팅' 봇물

기념 특화상품·수수료 면제·이벤트 행사 등 마련

은행권에 '애국' 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광복절 기념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태극기 걸기 동참과 광복 알리기 이벤트 등을 내놓고 있다.

나라사랑의 뜻을 되새기는 등 애국심과 고객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호국보훈과 관련한 마케팅으로 발맞추는 모양새다.

◆ 광복절 특화상품 출시·수수료 면제 혜택

NH농협은 광복절 연휴기간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한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NH농협은행과 농축협 고객은 자동화기기 운영시간 내 현금 입·출금와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농협은 14일까지 NH스마트뱅킹에 신규가입하거나 스마트·인터넷뱅킹을 통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뱅킹' 이벤트도 실시한다.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는 독도여행상품권(70명)과 농촌사랑상품권(815명) 등이 주어진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광복 70주년 기념 특화 상품인 '대한민국만세 예·적금'을 출시했다.

이는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 은행이 계좌당 815원을 출연,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해외 독립유적지 보존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8월 21일까지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적금 가입시 자동 응모대상이 되며 이벤트 당첨시 중국 항일 유적지 도시 자유여행권 등 다양한 선물을 받게 된다.

/각 사 제공

◆ 태극기 부착·인증샷 공유 이벤트

나라사랑과 독립의 의미를 전달하는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신한은행은 8월 한달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 1,2호선 환승역 35곳에 김구 등 독립운동가 70인의 나라사랑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고를 제작해 운영한다.

젊은 세대의 호응과 역사 알기를 도모하기 위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한 인증샷 이벤트도 마련했다.

지하철 역사 35곳의 인증샷을 모두 찍어 공유하는 고객 중 선착순 30명에게는 5만원권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신한은행은 또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객 초청 무궁화 그리기 대회 ▲길거리 태극기 배포 행사 등 모든 연령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복절 행사도 준비됐다.

한국은행은 광복절 당일 화폐박물관 방문객에게 '광복절 7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진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화폐박물관에는 그간 발행된 '광복절 기념주화 테마전'과 기념주화속 인물을 활용한 포토존이 설치돼 있다.

DGB대구은행은 본점 열린광장에 대형태극기를 게재하고 작은 태극바람개비 70개로 큰 태극기 모양을 만든 '태극 동산'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태극동산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8월 한달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한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시중은행은 문을 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이나 예금·주식 등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으로 연기된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우리은행 "요일별로 찾아가는 이동점포 '위버스' 운영" 우리은행은 매주 정기적으로 특정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일제 이동점포 '위버스(WeBus)'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위버스(WeBus)'는 자체 발전설비와 위성 송수신 장비를 이용해 어디서나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든 이동점포 차량이다. 이는 올 하반기 영업전략인 '찾아가는 영업'의 일환으로 아직 영업점이 설치되지 않은 ▲월요일 고양 삼송 ▲화요일 양주 고읍 ▲수요일 의정부 민락지구 ▲목요일 남양주 오남 ▲금요일 경기 양평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위버스를 운영한다.

/우리은행 제공

김연배 한화생명 부회장 자진사임

김연배(71·사진) 한화생명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한화생명은 지난주 김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1968년 한화증권에 입사해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 금융부문 부회장 등 47년간 그룹에 헌신한 '한화맨'이다. 지난해까지 비상경영위원장을 지내며 투자·경영전략 등 그룹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그는 지난해 9월 한화생명 대표이사로 선임돼 "전 사업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을 주도해 왔다.

한화생명은 김 부회장이 이끈 혁신 덕분에 올해 상반기 전자청약률(40%)이 지난해 말보다 2배 넘게 증가하고, 고정비를 1000억원 이상 절감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와 더불어 한화생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김 부회장의 사의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달 말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배 기자 bobae@

금융산업 하강 국면… 은행 수익성 부진 잇따라

하나금융硏 "비은행 부문 실적 개선에도 하강 탈피 쉽지 않을 것"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산업 전체의 순수익이 줄어드는 등 금융산업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5년 하반기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문 수익성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금융 산업이 하강 국면을 탈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금융업권 순수익의 총합이 2005년 48조원에서 2011년 75조원을 기록, 연평균 7.7%씩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순수익은 70조1000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금융업권 전체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의미다.

특히 2005년 전체 순수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은행의 비중이 작년의 경우 40% 아래로 급전직하했다. 빈자리는 생명보험업이 차지했다.

여기에는 고령화, 저금리와 함께 세제혜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연구소는 "마진율 방어를 위한 금융업계의 노력은 지속될 테지만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져 핵심이익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꼽았다.

아울러 계좌이동제 시행과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따라 은행의 영업행로는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준범 수석연구원은 "점증하는 자산관리 수요에 맞춰 은행에도 투자일임업 등을 허용해 은행에 새로운 수수료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비은행 부문의 하반기 실적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업의 경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시장과 개인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난 상반기의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

단 높아진 보유채권 규모로 인해 금리변화에 따라 이익 변동성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학 수석연구원은 "증가 일로의 자산관리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생명보험업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저축성보험 판매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아란 기자

공공택지 전매 제한 '속빈 강정' 되나

2년간 전매금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견건설사, 계열사 동원 5년간 공공택지 싹쓸이
'1사 1필지' 등 공급 개선안은 빠져… 실효성 의문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공공택지 전매(轉賣) 관행을 개선키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택지공급방식의 변경안이 빠지고 전매 허용 예외조항이 포함되는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그간 건설사들이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통해 전매를 무분별하게 활용한 데 따른 조치다.

전매제한 특례제도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택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견업체의 횡포가 심했다. 이들 업체들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해 한 공사에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반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02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44.3%다.

LH가 지난 3월 24일 화성동탄2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한 28개 업체 중 27곳이 반도건설 계열사였다. 이 가운데 계열사인 한숲

정부가 건설사의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위해 도입하는 공공택지 전매 2년 금지 개정안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뉴시스

개발이 당첨됐다. 같은달 31일에 실시된 인천 가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에서는 호반건설이 총 23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결국 이 업체의 계열사인 티에스주택이 아파트 용지를 낙찰 받았다.

호반건설과 반도건설은 최근 5년간 이런 수법으로 각각 15곳과 6곳에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중흥건설도 최대 31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24곳에서 당첨됐다.

이중 호반건설은 5곳을 계열사에 전매했다. 반도건설과 중흥건설도 각각 14곳과 1곳을 계열사에 팔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전매제한 조치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 입찰에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시행사로 선정되면 기존에 활용하던 전매 대신 모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된다.

개정안에 예외조항을 삽입한 것도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나 부도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택지를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도 전매가 허용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공택지 전매 제한조치를 내놓은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회사만 1개의 필지에 입찰하는 '1사1필지' 도입제한 등이 빠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공공택지 공급이 지속된다면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정작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만큼 개정안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대림산업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교통망 풍부… 강남·수도권 이동 수월

옥수 13구역 재개발 단지
1976가구 규모 이달 분양

대림산업은 이달 말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옥수13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5개동, 전용면적 59~115㎡, 총 1976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115㎡ 46가구 ▲테라스하우스 107㎡ 2가구 등 총 114가구다.

인근 동호대교를 이용할 경우 압구정동까지 3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를 활용해 강남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도 이용할 수 있다.

매봉산공원, 응봉근린공원, 남산공원 등과 인접해 있고 한강변으로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명문 초등학교인 동산초, 리라초외에도 금옥초, 동호초, 옥수초, 옥정초·중학교가 인근에 있다.

아파트 내부에는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오렌지로비(일부 동 제외)가 설치된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안전하게 로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출입구 단차를 없앴다. 1층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현관과 1층 세대 입구를 분리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가족운동실,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와 주민회의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분양홍보관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39-8번지에 마련된다. 준공은 2016년 12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아파텔 인기 고공행진… 수천만원 웃돈 형성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의 오피스텔>

저렴·대단지 매력 수요 몰려
하반기 수도권 공급 잇따라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소형 아파트 대체상품인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내 구조나 단지규모 등 아파트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분양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1498가구)'의 전용 59㎡ 오피스텔의 경우 500만~1000만원 가량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이 타입은 방2개, 별도거실, 욕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옛 18평형 아파트와 흡사하다. 또 아파트와 함께 총 994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돼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부지에 짓는 '킨텍스 꿈에그린'(1880가구) 전용 84㎡도 2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가격이 저렴한 점도 오피스텔이 장점이다.

아파트 닮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단지

사업명	위치	전용면적(㎡)	총실	분양시기	건설사
기흥역 더샵	용인 기흥역세권지구	59	175	8월	포스코건설
위례지웰 푸르지오	하남 위례신도시	68~84	784	8월	대우건설
광교 중흥 S클래스	수원 광교신도시	70~84	230	8월	중흥건설
광교 더샵	수원 광교신도시	83	276	분양중	포스코건설
청라 롯데캐슬	인천 청라국제도시	58~116	498	분양중	롯데건설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각 업체

전용 59㎡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지어진 광교신도시 C4블록 '광교 더샵'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3㎡의 기준층 분양가는 4억1000만원대로 인근 아파트 전용 59㎡의 시세(4억3000만원대)보다 저렴하다.

올 하반기에도 오피스텔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에 '기흥역 더샵'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1개동 전용면적 59㎡, 총 175실이다. 방2개, 거실, 욕실 2개, 주방·식당 등 옛 18평형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다.

롯데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 M4블록에 '청라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50층 1개동 전용면적 58~116㎡, 총 498실이다. 수요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높은 세금과 발코니 확장 불가 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대단지 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7월 부동산경매 핫 매물 '완도군 생일도 임야'

감정가 1122% 1865만원 낙찰
낙찰가율 넉달째 70%대 유지

지난달 부동산경매 최다 응찰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 완도군 생일도 인근 임야 1108㎡로 나타났다. 이곳은 63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 166만2000원의 1122%인 1865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밖에 일산동구 풍동 소재 근린상가(13억4377만원에 낙찰)에 50명이 몰렸다. 수원 영통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도 46명이 응찰했다.

이 기간 전체 법원 경매진행건수는 1만2676건수, 낙찰건수는 4978건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72.1%로 4개월째 70%를 유지했다. 업무상업시설은 6월보다 5.5%p 상승한 70.2%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75.9%)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매 감소 추세와 더불어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법원 경매계의 신건 진행이 줄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업무상업시설과 토지 낙찰가율이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삼성전자, 잇단 악재에 성장동력 '물음표'

뻥튀기 홍보 탓 스마트폰 부진 한 몫
합병 논란… 2분기 주가 '약세 흐름'

삼성전자의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매끄럽지 않은 합병·승계 과정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의 성장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고, 주주권익은 뒷전이라는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44% 오른 114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올랐으나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 동력이 모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갤럭시 S6시리즈의 부진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 S6·S6 엣지를 공개했다. 외신과 정보기술(IT) 매체 등 언론의 호평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세를 탔다. 이어 4월 9일 국내시장에 갤럭시 S6·S6 엣지를 출시하자 이튿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중 최고치인 150만3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갤럭시 S6 시리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의 홍보정책이 시장의 실망감을 부채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기반응에 고무된 삼성전자는 신종균 사장이 직접 나서 '7000만대 판매'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일부에서는 '이재용 폰'으로까지 치켜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아이폰6 플러스가 잘되고 있어 글로벌시장서 5000만대만 돌파해도 선방하는 것이라고 솔직한 홍보전략을 펼쳤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곤두박질 칠 일도 없었다"며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것과 달리 국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기대를 밑돌아 삼성전자의 부담만 가중된 꼴"이라고 말했다.

외신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카드'로 평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삼성전자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된 7월 17일에 종가 130만5000원을 기록한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까지 16거래일 동안 약 12.57%가 빠졌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공격 빌미를 제공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등 기업가치 보다 총수일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밀어붙이기식 합병이 외국투자자들의 반감을 증폭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악화된 국민감정과 여론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체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 중간배당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정책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더 이상 스마트폰 사업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명확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이 내년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의 차별화 축소, 해외 글로벌 IT 경쟁자들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전략과 대비되는 삼성의 소극적 행보, 중국 IT 업체들의 급부상은 투자자들에게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영승계와 관련된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삼성전자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LG·소니·화웨이도 '페이' 시장 뛰어든다

LG, 넥서스폰 출시 임박
애플·삼성·구글 '3강체제'
日·中 제조사도 서비스 준비

스마트폰 제조사와 포털, 이동통신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서비스 전쟁에 합류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바일 결제 시장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와 소니, 화웨이 등도 '페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올 연말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애플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경쟁은 이 회사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애플페이'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북미는 물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내 서비스도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삼성전자도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공개했다. 삼성페이는 NFC와 함께 보급률이 높은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단말기도 지원한다.

LG전자는 구글과 손잡고 안드로이드 페이가 담긴 넥서스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넥서스 시리즈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때문에 스마트폰 페이 시장의 판도는 곧바로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이 벌이는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전자가 안드로이드 페이를 탑재한 레퍼런스 폰을 선보인 만큼 자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계약 문제와 간편 결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한 뒤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본 소니와 중국 화웨이와 레노버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 경쟁에 합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니는 자체 개발한 펠리카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펠리카는 비접촉 IC 카드 기술 방식을 적용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표준으로 채택돼 교통카드, 신분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니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게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모바일 제조사들도 발 빠르게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과 삼성, LG전자가 올 하반기 초고사양 제품을 선보이며 모바일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는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포, 김해, 제주, 사천, 성남, 대구, 광주 등 8개 공항에 올레드 TV(55EC9310) 132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LG전자 제공

LG전자, 국내 공항 '올레드TV'로 교체

LG전자는 국내 공항에 설치한 기존 LCD TV를 올레드 TV로 모두 교체한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포, 김해, 제주, 사천, 성남, 대구, 광주 등 8개 공항에 올레드 TV(55EC9310) 132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등 유동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 방문객들이 오랜 시간 TV를 본다는 점을 감안해 공항에 설치한 TV를 올레드 TV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기존 LCD TV와 달리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공항에 설치한 TV는 보행 통로, 대기실 등 공항 곳곳에 있기 때문에 공항 이용객들이 TV의 정면, 측면, 후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TV를 볼 수 있다.

허재철 LG전자 한국HE마케팅FD 상무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공항 방문객들이 세계 최고의 TV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삼성·애플·샤오미, 하반기 태블릿 격돌

갤럭시 탭S2·아이패드 프로 출시
샤오미, 윈도우10 기반 모델 예고

삼성전자와 애플, 샤오미가 하반기 태블릿 PC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신경전이 한창이다.

하반기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성장이 정체된 태블릿 PC 시장의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11일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S2'를 국내에 출시한다. '갤럭시 탭S2' 9.7인치의 경우 터치패드가 탑재된 전용 키보드 패키지를 출시해 문서 작성의 용이성을 제공한다.

또한 13일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또 다른 태블릿 PC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내달 9일 아이폰6S 시리즈와 함께 12.9인치 대화면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2'의 화면 크기는 9.7인치로 애플은 태블릿 PC와 패블릿 스마트폰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이 곧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새 운영체제 iOS 9, 터치ID, 2732x2048 해상도 등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업체 샤오미는 윈도우10 기반의 태블릿 PC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해외 IT전문매체 GSM아레나는 중국의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 샤오미가 올해 3분기에 윈도우10 기반의 태블릿 PC를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샤오미가 윈도우 기반의 태블릿 출시를 통해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은정 기자

삼성전자 SUHD TV
유럽 5개국서 '최고'

삼성 SUHD TV가 유럽 5개국에서 각각 진행된 소비자 연맹지의 올해 TV 신제품 평가에서 모두1위에 올랐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의 위치(Which) △프랑스의 끄 슈와지르(Que Chosir) △스페인의 오씨유 콤프라 마에스트라(OCU-Compra Maestra) △이탈리아의 알트로콘수모(Altroconsumo) △포르투갈의 데코 프로테스테(Deco Proteste)는 SUHD TV를 2015년 출시된 TV 중 1위로 선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발표는 유럽 소비자 연맹지가 내놓은 신제품 TV 비교 평가의 첫 결과고, TV 성수기인 하반기에 TV 구매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한진 기자

우리가 애국기업… 재계, 광복 의미 기린다

한화, '광복 70年' 맞아 호국보훈사업 활발
효성·에쓰오일·삼성·현대차 등도 적극 동참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업들의 기념행사가 연이어 파도치고 있다.

10일 각사에 따르면 한화는 대한민국 방산업체 소임을 다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가장 다양하고 활발하게 광복절을 준비 중이다.

한화그룹은 서울 장교동 본사와 주요계열사 빌딩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또 나라사랑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그룹 전 계열사가 14일 임시휴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4~15일 전국 4대 도시(부산, 대구, 광주, 서울)에서 잇달아 총 30여만발에 달하는 불꽃을 쏘아 올리며 성대한 축제를 열 계획이다.

한화는 앞서 △6·25 참전용사의 주거개선 지원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 △서울·대전 국립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그룹에 입사한 천안함 유가족 직원 격려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태종 한화 사장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화에 이어 석유화학 업계도 태극기 게양에 동참했다.

효성그룹과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 공덕동 각 본사 빌딩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다.

효성은 마포 본사 건물 외벽에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 효성이 새로운 70년을 열어갑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태극기 그림을 내걸었다. 또 14일을 전 직원 유급휴일로 지정해 광복절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효성은 2007년 사업장이 진출해 있는 중국 가흥 지역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던 백범 김구 선생의 피난처를 보존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아울러 참전용사에게 새 집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과 현충원 1사 1묘역 정화 활동 등 호국보훈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을 사이에 두고 효성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에쓰오일 역시 사옥에 세로 33m, 가로 18m에 달하는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태극기에는 '날아라 대한민국, 달려라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14일 휴무에 동참하며 광복의 뜻을 기리기로 했다.

재계서열 1위와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도 애국의 물결에 합류했다.

삼성그룹은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위치한 서초동 삼성생명 건물에 대형 태극기를 내걸었다. 이 근방을 찾은 인파가 보기 쉽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 70주년!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구를 태극기 밑에 달았다.

현대차는 이달 말까지 호국보훈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소방공무원, 교사와 교직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현대차는 승용차와 레저용차량(RV) 전 차종(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에쿠스, 신형 투싼 제외)에 대해 기본 우대 혜택에 30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한화, 광복 70주년 기념 불꽃축제

14~15일, 전국 4대 도시서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4대 도시에서 불꽃축제를 개최한다.

한화그룹은 14~15일 부산(롯데그룹 주관), 대구(삼성), 광주(현대차), 서울(LG·CJ)에서 열리는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 행사에 불꽃쇼를 연다.

14일은 부산(북항재개발구역), 대구(수성못)에서, 15일은 광주(풍암호수공원), 서울(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불꽃쇼를 진행한다.

이번 불꽃축제에서는 총 30만여발의 다채로운 불꽃을 쏠 예정이다.

부산은 오후 9시5분, 나머지 지역은 9시30분경 불꽃쇼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는 2000년부터 매년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정필 기자

SK하이닉스가 과학 인재를 지원합니다

'IT창의과학탐험대' 실시

SK하이닉스(대표이사 박성욱)는 10일부터 이틀간 과학에 재능이 있는 이천·청주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 3회 'IT창의과학탐험대'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IT창의과학탐험대는 미래 아인슈타인을 키우는 '하인슈타인'(SK하이닉스+아인슈타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과학 분야에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행복나눔기금'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이천과 청주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과학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추천 받아 최종 평가를 통해 108명을 선발해 로봇·IT정보·항공우주 세 팀으로 구성했다.

10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제3회 SK하이닉스 IT창의과학탐험대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여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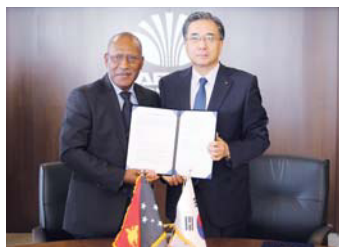
IT창의과학탐험대원 108명은 이날부터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견학을 시작으로 카이스트(KAIST)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와 나노 FAB 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공학센터 등을 방문해 기술 시연과 강연, 과학자의 인터뷰 등을 각각 체험한다. 이날부터 진행된 기술 시연에서는 해파리 퇴치와 원자력 로봇 시연, 무인항공기 시연, 열전기술 시연 등이 진행됐다.

국내 견학 이후 우수 참여 학생 20명을 선발해 중국 우시의 SK하이닉스 생산법인과 알리바바 본사, 상해 대학 연구실 등 글로벌 IT산업 현장 체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대우인터, 파푸아뉴기니 경찰청 사업 수주

4천만불 규모…통신망 등 구축

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김영상)은 10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파푸아뉴기니 경찰청과 4000만불 규모의 파푸아뉴기니 경찰 통신망 및 CCTV 구축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 계약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은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레스비 전역에 경찰용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TRS)과 CCTV 시스템을 공급하고 경찰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프로젝트 오거나이저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포스코ICT는 TRS의 공급과 설치를, 엔터스정보통신은 CCTV를 담당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해 내년까지 현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기아차 임직원 24명, 열흘간 아프리카 봉사활동 펼쳐

기아자동차 임직원 봉사단이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기아차는 1일부터 열흘 간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리마, 릴롱궤에서 청소년 교육 및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진행했다.

기아차 임직원 봉사단은 24명으로 국내외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선발됐다.

기아차 직원(왼쪽)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다.

주요활동은 ▲청소년 교육 지원(중등학교 건축, 교육봉사, 재능기부, 가정 방문 등) ▲봉고트럭을 활용한 이동 교육 지원(이동 클리닉, 도서관, 영상관 등) ▲지역주민 자립사업 지원(옥수수 방앗간 등) 등이다.

릴롱궤 지역에서는 6일(현지시간) 그린 라이트 스쿨 개교 1주년을 맞이해 기아차 임직원,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마을잔치를 열었다.

기아차는 탄자니아 바가모요 지역에서 그린 라이트 중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창업기술 교육 훈련 ▲자립지원 사업 추진 ▲인권 개선 교육 ▲건강검진 지원 등 단순히 인프라를 제공하는 자선활동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한국지엠, 하반기 삼각편대 투입 총공세

<스파크·임팔라·트랙스>

경차·세단·SUV로 적극적인 시장공략 노려

쉐보레 임팔라.

한국지엠이 하반기 스파크·임팔라·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 등 신형 삼각편대를 투입해 시장공략에 나섰다.

10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신형 스파크인 '더 넥스트 스파크'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신형 스파크는 지난달 7000대 가량의 사전계약이 성사돼 월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달 출고된 신형 스파크 물량은 대부분 전시차량이라서 미미한 수준이다. 이달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달 휴가기간과 공휴일을 감안하면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극적인 판촉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신형 스파크는 1.0ℓ SGE 에코텍 엔진이 탑재돼 최대출력 75마력, 최대토크는 9.7kg·m의 힘을 낸다. 새롭게 도입된 애플 카플레이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내비게이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1015만~1499만원이다.

경쟁 모델인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스파크의 연비는 비슷한 수준이다. 스파크가 ℓ당 14.8~15.7km, 모닝이 ℓ당 14~16.2km다. 모닝 가격은 955만~1455만원에 책정됐다.

이날 기아차는 신형 스파크에 맞서 모닝 스포츠도 출시했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모델이 1280만~1365만원, 터보 모델이 1480만원이다.

또 한국지엠은 준대형 세단 쉐보레 임팔라를 9월 출시한다. 7월 31일 사전계약 시작 후 6영업일 만에 계약대수 1000대를 넘었다. 판매가격은 3409만~4191만원이다. 2.5ℓ모델은 최고출력 199마력, 최대토크 26.0kg·m다. 3.6ℓ모델은 최고출력 309마력, 최대토크 36.5kg·m의 힘을 낸다. 연비는 9.2~10.5km/ℓ다.

아울러 한국지엠은 소형 SUV 트랙스 디젤모델로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는 목표다. 올해 1~7월 현대차 투싼(3만4424대), 쌍용자동차 티볼리(2만2535대), 르노삼성자동차 QM3(1만2549대)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트랙스는 이 기간 6178대가 팔렸다. 연비는 트랙스 디젤이 14.7km/ℓ다. QM3(18.5km/ℓ), 투싼(15.6km/ℓ) 티볼리 디젤(15.3km/ℓ)보다 낮다. 트랙스의 가격은 2195만~2510만원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임팔라의 경우 연비향상, 옵션, 디자인 등을 한국적으로 개선해 미국차 특유의 투박함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스파크는 고급옵션이 하향평준화돼 상품성을 갖췄다. 모닝과 겨뤄볼만 하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5

SKT·KT·LGU+ 이통3사 잇따라 수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가 디자인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5'에서 수상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디자인 컨셉 부문에서 '박스쿨'이 최고상(Best of Best)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커버앤'이 위너 수상을,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스마트히어링 에이드'가 위너를 수상했다. SK텔레콤&카이스트의 '박스쿨'은 교육 인프라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설계한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 스마트 교실이다.

KT는 '폰브렐라'로 디자인 컨셉에서 스마트부문과 패션부문 최고상을 동시 수상했다. 폰브렐라는 우산을 쓴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과 가볍고 고급스런 소재가 특징이다. LG유플러스도 모바일 비서 서비스인 '보이는 쇼핑'과 'U스푼', 'U+카메라', 'LTE무전기' 총 4개의 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앱스(Apps) 부분에서 위너를 수상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기아자동차, 모바일 앱 부문 우수상

기아자동차는 올 뉴 쏘렌토, 쏘울 전기자동차(EV)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레드닷 어워드'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모바일 앱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상식에는 전 세계 53개국에서 7451개의 작품이 출품돼 분야별 경합을 벌였다.

기아차에 따르면 올 뉴 쏘렌토와 쏘울 EV의 아이패드용 영문 모바일 앱은 세련된 디자인과 체험 위주의 구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손쉽게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내외장 컬러를 변경하거나 차량의 실내공간과 편의사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3D 입체화면 구현으로 현실감을 높였다.

또 기술에 대한 설명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의 재미와 이해를 높였다.

/정용기 기자

네이버 지하철노선도 사회책임분야 최고상

네이버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하철 노선도가 사회책임분야 최고상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네이버의 지하철노선도 색약버전이 사회적 책임 부문의 최고상인 'Best of the Best'에 선정됐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전국 지하철 노선도에 강, 바다 등 지형 정보와 실제 위치를 반영하며 노선도를 개편했다. 이후 색각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동행 조사를 진행, 방향성 있는 직선과 곡선을 적용하고 색상을 조정하는 등 새로운 버전을 제작했다. /정문경 기자

기아차, 얼굴 바꾼 '모닝 스포츠모델' 출시

머플러 트윈팁 적용해 스포티한 이미지 구현

기아자동차는 경차 모닝 스포츠 모델을 10일 시판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모닝 스포츠는 기존 모델 대비 범퍼부를 스포츠모델 전용으로 변경하고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을 적용했다.

전면부는 독특한 모양의 넓은 인테이크 그릴을 적용, 기존 모델보다 넓어 보이는 스타일로 변경했다.

범퍼 양끝부분에 에어커튼 스타일의 장식을 더했다.

후면부는 원형의 백업램프와 범퍼 양끝부분에 에어커튼 스타일의 장식을 추가했다.

스포츠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플러 트윈팁(하나의 머플러에 배기구가 2개 달린 것)을 적용해 안정감 있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전 차종에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과 슈퍼비전 클러스터, 알로이 페달을 기본 적용했다.

1.0가솔린과 1.0가솔린 터보 엔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자동변속기 기준 판매가격은 ▲가솔린 모델이 1280만~1365만원 ▲터보 모델이 1480만원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다음카카오, 30대 임지훈 케이큐벤쳐스 대표 내정

다음카카오가 젊어진다.

다음카카오는 신임 단독 대표로 임지훈 현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만 35세·사진)를 내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 강하고 속도감있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공동 대표 체제에서 단독 대표 체제로 돌입하겠다"며 "합병 이후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를 거쳤다. 이후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이사를 맡았다.

특히 임 내정자는 케이큐브벤처스를 설립한지 3년 만에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로 키워낸 바 있다. '핀콘', '두나무' 등 50여개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수십 배로 가치가 오른 기업들을 다수 배출했다.

이번 단독 대표 체제 전환과 신임 대표 선정은 합병 이후 문화적, 조직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모바일 생활 플랫폼 경쟁력의 기초를 닦은 최세훈, 이석우 공동대표의 적극 제안과 추천으로 이뤄졌다.

임 내정자는 "모바일 시대 주역인 다음카카오의 항해를 맡게 돼 기분 좋은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다음카카오를 대한민국 모바일 기업에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 리딩 기업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내정자는 오는 9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이랜드, 中 유통시장 진출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몰 '팍슨 뉴코아몰' 1호점 오픈
백성그룹과 합작… SPA·직수입 명품·외식 브랜드 입점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이 중국 유통사업을 시작한다.

이랜드그룹은 중화권 유통그룹인 백성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11월 중국에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몰 '팍슨 뉴코아몰(PARKSON-NEWCORE MALL)'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양 사의 합작사 설립은 지난 해 박성경 부회장과 중팅썬(鍾廷森) 백성그룹 회장이 신년 간담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 본격적인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사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50여 차례 임원단 공식 미팅과 200회 이상의 실무진 미팅을 통해 합작사를 최종 설립했다. 합작사의 모든 경영은 이랜드가 맡고, 점포는 백성그룹의 백화점을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지분은 이랜드가 51%, 백성그룹이 49%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백화점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유통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유통 모델을 선보여 중국 유통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그룹 제공

팍슨 뉴코아몰 1호점은 포동과 포서를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과 바로 연결되는 상해 창닝 지구 천산점으로 확정됐다. 중국 백성그룹이 4년 동안 운영해오던 백화점 매장으로 영업면적은 약 5만㎡ 규모다. 주변은 외국인 주거 밀집지역이다.

팍슨 뉴코아몰 천산점은 스파오, 미쏘, 슈펜, 모던하우스, 라템 등 글로벌 SPA (제조유통일괄) 브랜드로 구성된다. 또한 이랜드가 인수한 만다리나덕, 코치넬레, 케이스위스 등 미국·유럽 브랜드와 글로벌 명품 직수입 매장 등도 입점할 계획이다.

한국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10여개 한국 화장품관과 다수의 중소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는 한국 트랜드 편집샵도 구성된다.

한식 부페 자연별곡, 애슐리, 피자몰 등 이랜드 외식 브랜드와 상해 1등 맛집 등 50여개 외식 브랜드도 선보인다. 코코몽 키즈랜드와 지능형 어린이 레고 놀이터 등 유아동 특화 조닝도 구성된다.

양사는 이번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랜드와 백성그룹은 중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0여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랜드는 현재 6대 사업영역에서 250여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에서 44개 브랜드와 7300여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이다. 백성그룹은 중국과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127개의 백화점 유통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시아 유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2020년까지 100여개의 유통 매장(한국 제외)을 만들 방침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칭따오 맥주 홍보행사 10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홍보행사에서 칭따오 맥주 광고 모델 정상훈과 모델들이 맥주와 어울리는 각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광복 엠블럼 부착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은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에 광복70주년 기념 초대형 태극기를 내건 데 이어 서울시의 광복 70주년 엠블럼 '나의 광복' 걸개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의 광복' 엠블럼은 롯데월드타워 70층 높이에 걸린 초대형 태극기 하단 43~58층 구간에 가로 36m, 세로 52m 길이로 부착됐다. 펼친 넓이는 1872㎡(약 566평)에 달한다. /박상길 기자

유통家, 한가위 예약판매… 최대 반값 할인

백화점·대형마트 등 명절 선물 상품 할인

유통업계가 한가위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롯데백화점은 17일부터 9월6일까지 21일간 추석 사전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 상품군인 청과, 정육, 건강상품 250여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는 'GNC 츄어블비타민C100 세트' 2만7300원, 'GMS 고려홍삼봉밀절편' 2만9000원, '샤또 와인 2호 세트' 4만5000원, '더덕 실속세트' 9만원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추석 선물 예약 할인전을 진행하며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또 250여 종의 신선·가공식품 등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대표 명절 선물 품목인 한우는 7~10%, 과일은 판매가격에서 1만원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갤러리아백화점은 21일부터 전 지점에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이 기간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상품 19개 세트를 선별해 판매한다.

AK플라자는 9월 10일까지 추석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이 기간 주문 고객에 선물세트 전 품목을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 '플라자 혼합세트(과일), AK선수마당 차례상세트(굴비), '개군한우경세트(한우) 등의 인기 상품을 추가로 20~30% 할인한다.

롯데마트는 10일부터 9월13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한다. 사과·배·한우 등 신선 선물세트부터 통조림·식용유 등 가공 선물세트, 샴푸·치약 등 생활 선물세트 등 106개 품목을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개인 구매 고객을 위해 단품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 설(50%)보다 70%까지 확대했다. 9월 13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와 익스프레스, 온라인쇼핑에서 추석 대표 선물세트 180여 종에 대한 사전 예약 판매를 시행한다. /박상길 기자

현대百 '혼캉스족' 겨냥 가구대전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가을 결혼을 앞두고 혼수를 준비하는 이른바 '혼캉스(혼수+휴가)족'을 겨냥해 '2015 현대가구대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12~16일은 서울 무역센터점 문화홀, 14~16일은 서울 목동점 대행사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무역센터점에는 에이스침대, 다우닝, 템버, 한국가구, 디자인벤처스 등 16개 가구 브랜드가 참여한다.

목동점에는 1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박상길 기자

한국도자기, 청주공장 재가동

한국도자기(대표 김영신)가 10일 청주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자기는 지난 7월 1943년 청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추고 생산 시설 보수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한국도자기가 계속해서 국내생산을 고집하면서 전진함은 물론 국가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제조업체로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국내 소비자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KT&G, 광복 70주년 '태극기 캠페인'

T&G가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며 전사적으로 태극기 캠페인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KT&G는 이날부터 전국 123개 영업지사 및 지점에서 운행하는 1038대의 차량에 '상상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태극기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한 서울 홍대 앞, 강원 춘천, 충남 논산에 위치한 KT&G상상마당 건물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KT&G는 이 곳을 방문하는 많은 국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보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돌아보게 할 방침이다. /정은미 기자

제일모직 엠비오, 中고객 소통 강화

내년까지 매장 100개 목표

제일모직(패션부문 대표 윤주화) 엠비오는 지난 8일 중국 상하이 천수만(淺水灣)문화예술센터에 배우 이종석을 초청해 '이종석과 함께 하는 스타일 파티'를 열고 중국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엠비오는 이종석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 매장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진출 이후 상하이, 베이징 등에 4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박상길 기자

이연복 셰프 모델 '팔도짜장면' TV광고 팔도(대표 최재문)가 '팔도짜장면'의 TV광고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액상 짜장소스와 가루 짜장스프의 비교를 통해 팔도짜장면의 맛과 품질 면에서 탁월한 제품력을 알리고자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팔도 제공

CJ '즐거운 동행' 매출 650억원 전망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상생 브랜드 '즐거운 동행'이 연 매출 600억 원대 대형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0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상생 브랜드 '즐거운 동행'은 올해 약 6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 32% 가량 상승한 것이다.

즐거운 동행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영업·마케팅 등 품질 및 판매향상을 위한 기술과 유통망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CJ제일제당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정은미 기자

롯데제과 '상생 결제시스템' 도입

김용수(58·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롯데제과 대표가 전국의 파트너사를 방문해 현장 일선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 경영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0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7일 파트너사 3곳을 방문, 현장일선을 둘러보고 파트너사와 향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롯데제과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파트너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 대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생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파리지앵 사로잡은 '단팥크림 코팡'

SPC그룹(회장 허영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가 10일부터'단팥크림 코팡(KOPAN)'을 국내에 출시한다.

단팥크림 코팡은 파리바게뜨가 파리 매장에서 '브리오슈 크렘 드 레 레드 빈(BRIOCHE CREAM DE LAIT RED BEANS)'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브리오슈(달걀 등을 넣어 만든 프랑스 빵)에 한국식으로 만든 단팥 앙금과 부드러운 크림을 넣은 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파리지앵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프랑스 파리바게트 샤틀레점과 오페라점에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정은미 기자

애경 '포인트 딥 클린 립앤아이 리무버'

애경(대표 고광현)의 클렌징화장품 브랜드 포인트가 입술과 눈 전용 '딥 클린 립앤아이 리무버' 2종을 10일 출시했다.

포인트 딥 클린 립앤아이 리무버는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은 물론 아이라이너·마스카라까지 제거하고 피부 보습까지 한 번에 관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불순물 제거와 정화 능력이 뛰어난 특허성분 모링가 씨앗을 함유해 피부표면과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롯데식품 매출 줄줄이 ↓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 이후 소비자·소상공인 불매운동 식품 계열사 제품 매출 급감

1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롯데마트·롯데슈퍼 골목상권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후 식품 계열사의 주요 제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와 탈세의혹이 불거지고 소비자단체와 소상공인들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식품 계열사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ㄱ 대형마트에 따르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달 27일부터 8월 9일까지 롯데 식품 계열사의 주요 제품들의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매출 하락을 면치 못했다.

롯데그룹의 모태이자 제과·빙과업체인 롯데제과의 월드콘은 이 기간 여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6.8% 하락했다. 대표 제품인 빼빼로 매출도 전년비 13.5% 감소했으며 마가렛트는 66.7%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롯데아사히주류의 아사히맥주도 맥주 시장 성수기임에도 매출이 34% 줄었다.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은 저도주 처음처럼 순하리의 인기 속에 매출이 전년비 36% 상승했지만 전달 성장치 보다는 떨어진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연중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수복'의 매출도 이 기간 13% 감소했다.

ㄱ 대형마트 관계자는 "식품 매출은 날씨와 프로모션 여부에 따라 등락폭이 갈리지만 8월 초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로 식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높은 때임을 고려하면 롯데 제품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의 유통 계열사는 불매 운동 속에서도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매출이 역신장한 것을 감안하면서 상승세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롯데백화점의 지난 1~9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전점 기준 14.5%, 기존점 기준으로는 4.2% 상승했다. 롯데마트의 지난 1~8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신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밖에서 얘기되는 롯데 제품이나 유통사 관련 불매 운동과는 상관없이 매출은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간 되면 매출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700만명의 회원을 둔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은 잇달아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공표한데 이어 소비자와 함께, 활빈련 등 민간 소비자 단체도 롯데그룹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KT&G 화장품 계열사, 부진 만회 안간힘

동인비, 해외 사업에 박차 소망화장품 구조 조정 등

KT&G의 화장품 계열사인 KGC라이프앤진(대표 이인복)과 소망화장품(대표 최백규)이 강도높은 브랜드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해외 사업에 집중, 부진 만회에 나섰다.

10일 KGC라이프앤진에 따르면 홍삼 화장품 동인비가 연내 중국의 유통 업체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중국 유통 업체는 주로 프랑스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중국내에 유통해왔으며 고급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유통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인비는 홍삼 원료를 사용한 고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채널 유통에 강한 업체와 손을 잡은 것이다.

동인비와 랑을 전개하고 있는 KGC라이프앤진은 지난 2010년 설립된 KT&G 자회사다. 설립 이후 KT&G는 5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해왔지만 KGC라이프앤진의 실적은 좋지 못 했다. 지난해 손실 폭을 줄였지만 설립 이래 영업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 성장했지만 영업 손실액 49억원에, 당기순손실 6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자리를 잡지 못한 탓도 있지만 부족한 유통 채널도 부진의 원인이다.

동인비 자생원액 에센스

랑의 경우 아직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동인비도 주로 정관장 매장 내에서 숍인숍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동인비는 내년을 목표로 백화점 1층 단독 매장 입점을 추진중이다. 랑은 현재 진행 중인 브랜드 리뉴얼에 따라 유통 채널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30~40대 타깃이었던 랑을 20대 타깃으로 바꾸고 가격대도 낮춘다. 또 젊은층이 타깃인 만큼 기존 원료인 홍삼 외에 다른 원료로 만든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KT&G가 인수한 소망화장품도 브랜드와 채널 재정비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한창이다. 중간 대리상을 끼고 진행했던 면세점 유통은 지난해 말 면세점 영업팀을 사내에 신설하고 올해부터 면세점 유통 직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계약 종료에 따른 부실 매장도 정리했다. 또 실패작으로 꼽혔던 브랜드숍 '오늘'은 신규 매장 오픈 중단에 이어 품목수를 대폭 줄이는 등 브랜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KT&G에 인수된 뒤 소망화장품은 2013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 /김수정 기자 ksj0215@

런던, 한국 '흥'에 열광

관광公 '코리안페스티벌' 성료
K팝·전통공연 등 문화 체험

지난 9일 한국관광공사가 '방한 시장 회복 100일 작전'의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최초로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 개최한 '2015 런던 코리안 페스티벌'에 5만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오는 10월까지 방한 관광수요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주영한국문화원(원장 김갑수),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지사장 차창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소장 박영일)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중앙 무대에서는 전통 공연예술로부터 K-팝과 비보이 공연 등 현대 문화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한국과 영국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영국 공연 팀도 참가했다.

런던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비보이 공연을 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중앙무대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식 체험관, 한류 콘텐츠관, 한국 전통문화·관광 체험관, 글로벌 대표 브랜드(LG, 현대) 상품관 등이 운영됐다.

관광공사 차창호 런던지사장은 "이번 '2015 런던 코리안 페스티벌은 하루 동안 다양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로 유럽지역의 관광업계와 언론에 집중적인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방한수요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융합의학연구원장에 박영일 교수 임명

이화의료원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 겸임
실·센터장 보직 인사 마무리

박영일 대외부총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김승철)은 10일 실장과 센터장 인사발령을 끝으로 의료원장·병원장 인사에 따른 보직 인사를 마무리했다. 먼저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을 맡고 있는 박영일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이대목동병원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겸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새롭게 이대목동병원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겸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을 맡게 된 박영일 대외부총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R&D혁신단장을 맡아 미디어-기술-사회 간의 연관성에 착안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신임 박영일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겸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 임명으로 이화융합의학역원의 대외활동과 연구중심병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QPS센터장에는 한종인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임명됐으며, 국제협력실장에는 김선종 치과 교수가 선임됐다.

또한 최희정 감염내과 교수가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에, 주웅 산부인과 교수가 진료협력센터장 겸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장을 맡게 됐다.

아울러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 전산실장에는 조도상 신경외과 교수가, 홍보실장에는 김한수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실·센터장들은 오는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치선 기자

상명대, 국제 로보월드컵서 준우승 쾌거

안드로 솟 부분 첫 출전 활약
카이스트 제치고 3위도 차지

상명대(총장 구기헌) 정보통신공학과 로봇대표팀 'Humanoid Robot Club'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난 6~9일까지 열린 '제 20회 2015 FIRA 로봇월드컵&국제로봇학술대회'에 참가해 안드로 솟 부문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준우승과 3위를 자치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상명대 '4C기반 스마트디바이스공학 명품 인력 양성 사업단(단장 홍대기교수)'이 이끄는 2팀은 안드로 솟 부문에 처음으로 출전해 'B팀'은 말레이시아와의 최종 결승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거뒀다. 'A팀'은 로봇강호 카이스트를 제치고, 멕시코와의 3, 4위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제로봇올림피아드에서 논문발표를 통해 해외 컨퍼런스 게재를 확정지었으며, 저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대회에 참가한 상명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 제공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I)에 '4C 기반 스마트디바이스공학 명품인력(Hidden Champion) 양성 특성화 사업(사업단장 홍대기)'의 지원을 받아 2015년 3월에 시작됐다.

강태구(지도교수), 최원철(설계담당), 김동욱(3학년), 이재만(3학년), 오재일(3학년), 이다연(3학년), 강태훈(2학년), 고경석(2학년), 전혜연(2학년), 유수포브 딜무로드(2학년)로 구성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스테이크, 풀코스로 즐기세요"

빌라드샬롯

디너 스테이크 3종 출시
스프·샐러드·와인·케이크

롯데리아(대표 노일식) 레스토랑 사업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유럽풍 레스토랑 '빌라드샬롯'이 10일부터 디너 스테이크 세트 메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빌라드샬롯의 디너 스테이크는 총 3종으로 선보인다. 각 세트에는 기본적으로 스프와 미니마스카포네 치즈 샐러드·레드와인·미니케이크·커피 또는 영국 웨지우드 그린티로 구성해 하나의 코스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각 세트는 스테이크 메뉴를 차별화했다. 스테이크 메뉴로는 호주산 와규를 활용한 '와규 스트립 스테이크'와 진공 포장한 쇠고기를 저온의 물속에서 장시간 초벌 조리한 후 그릴에 굽는 방식의 '수비드(Sous-vide) 스테이크', 호주산 채끝 등심 부위를 활용한 스트립 '로인 스테이크'로 구성된다. 가격은 각각 3만5000원, 4만5000원, 5만5000원이다. 이용 시간은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빌라드샬롯은 세트 메뉴 출시와 함께 빌라드샬롯 인스타그램의 '엄지척 이벤트'를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빌라드샬롯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매장 인증샷과 #빌라드샬롯 해시 태그를 적용하는 참가자에 한해 식사쿠폰 1명과 음료쿠폰 5명을 선발한다. 총 3회에 걸쳐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빌라드샬롯 관계자는 "디너 스테이크 3종 코스 세트 메뉴는 다양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빌라드샬롯 방문해 다양한 스테이크 제품을 여유롭고 품격 있는 코스 식사로 즐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방통대 프라임칼리지, 9월 수강생 모집

제2인생 설계·준비과정
28일까지 34개 교과목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는 28일까지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를 통해 4050세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2인생 설계·준비과정' 9월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라임칼리지의 '제2인생 설계·준비과정'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가 탄탄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9월 개설 과목은 총 34개 교과목이며, 학내외 학습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14개 신규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은퇴 후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가, 건강, 주거 등 중장년층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후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료과정' 트랙이 눈이 띈다. '내가 직접 계획하고 떠나는 여행',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향기로운 와인이야기'등 총 5개 과목이 무료과정으로 마련돼 학습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자격증 취득과 전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 트랙에서는 '보건교육사 시험대비과목: 보건의료법규', '관세사 1차시험 대비과목: 내국소비세법', '일본어능력시험(JLPT) N1,2 시험대비과정' 등을 새롭게 개설해 학습자들이 각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문제풀이와 관련 이론을 동시에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문의:02-3668-4433

/복현명 기자

star bag

'A+'로 1년 만에 컴백

걸그룹 포미닛멤버 **현아**가 8월 솔로로 컴백한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현아가 오는 8월 중 네 번째 솔로 미니음반 'A+'를 발표하고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전했다.

팬 밥차 선물로 응원

영화 '순정'을 촬영 중인 배우 **김소현**이 팬으로부터 밥차 선물을 받았다. 소속사 싸이더스HQ는 10일 "김소현의 팬이 지난 6일 전남 고흥에서 진행 중인 '순정'의 촬영 현장에 밥차와 커피차, 간식 등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이영애와 호흡 맞춰

배우 **송승헌**이 SBS 새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에서 이영애와 호흡을 맞춘다. 사임당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치는 순정적인 남자 이겸 역을 맡았다. 약 3년 만의 브라운관 복귀다.

'치인트' 백인호 역 낙점

배우 **서강준**이 tvN 새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서 백인호 역으로 캐스팅됐다. 한때 촉망받던 피아노 천재였지만 지금은 꿈도 희망도 없는 백수 캐릭터다. 서강준은 김고은, 박해진과 호흡을 맞춘다.

'내 딸, 금사월' 캐스팅

배우 **이연두**가 MBC 새 주말극 '내 딸, 금사월'에 캐스팅됐다. 강만후(손창민)와 그의 전처 최마리(김희정) 사이에서 태어난 강달래 역을 맡았다. 재벌가 큰딸역할로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곧 예술이 된다.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정현(35)이 보여준 예술적 욕망이었다. 무대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철저함, 그리고 명확한 콘셉트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창작에 대한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수로서의 이정현을 재발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정현은 가수이기 이전에 배우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감독 안국진)는 배우로서 이정현이 지닌 재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영화다. 이정현은 남편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노동자 수남을 연기했다.

"관객 뇌리에 남을 때 가장 큰 희열"

단편 '파란만장'으로 인연을 맺은 박찬욱 감독의 추천으로 시나리오를 읽게 됐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빌려온 흥미로운 제목에 끌렸고, 단숨에 읽히는 시나리오에 빠져들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만나는 '여자 원톱' 영화라는 점에 사로잡혔다.

수남은 극중 대사처럼 "불쌍한" 여자다. 학교와 사회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열심히 해왔지만 정작 수남에게 남은 것은 빚만 잔뜩 안겨준 집, 그리고 식물인간이 된 남편뿐이다. 하지만 수남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늘 웃는 얼굴로 세상을 대한다.

"수남을 연기하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세상이 이 여린 여자를 자꾸만 괴롭히고 짓누르잖아요. 그럼에도 수남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정상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맑고 유아스러운 모습으로 수남을 설정했어요. 최대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기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슬펐어요."

이정현은 시나리오를 읽고 1시간 만에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만큼 애정이 컸다. 수남의 맑고 여린 면을 보여주기 위해 다섯 살 된 조카의 한글 공부를 지켜보며 수남의 글씨체를 만들었다. 일상에 찌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동대문에서 직접 의상을 사왔다. 극 후반부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세탁소에 갇힌 수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3주 동안 발톱을 안 깎기도 했다. 캐릭터 표현을 위한 이정현의 철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정현은 16세 나이에 영화 '꽃잎'으로 스크린에 데뷔해 충무로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연기를 통해 표출하고 싶은 에너지가 많았다. 그러나 데뷔작의 이미지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만나기 힘들었다. 그래서 배우 대신 가수로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럼에도 이정현의 마음은 늘 연기에 있었다. '파란만장'을 시작으로 '범죄소년'과 '명량', 그리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이정현은 매년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면서 다시금 연기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암살' 등의

박찬욱 감독 추천으로 접한 작품
불쌍 하지만 항상 밝은 수남 역
연기하면서 속으로 많이 울기도

가수보다 배우로 다가가고 싶어

흥행에 힘입어 여배우가 중심인 영화가 조금 더 많이 등장하기를, 그래서 자신도 좋은 작품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연기를 통해 관객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는 것이 배우로서 느끼는 가장 큰 희열이에요. 그래서 매 작품 더 많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수 활동도 꾸준히 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수보다 배우에 조금 더 치중하려고 해요. 가수보다는 배우로 대중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광주대단지사건 소재 다양한 예술기획 눈길

전시·저항예술제 잇따라

무질서한 산업단지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이 올해 광주대단지사건을 소재로 한 기획물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오는 30일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19710810 집없는집- 도시발생과 그 후 이야기'전을 개최한다. 집이란 무엇인가, 도시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는 도시화라는 거대담론에 숨겨진 45년 성남의 역사를 투영한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를 '공간의 광복'이라는 의미로 풀어냈다.

'19710810'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주민번호다.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는 서울시내 무허가 판잣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위성도시다.

당시 광주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도시를 점거하고 대규모 농성을 일으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을 통해 이들은 흙바닥이 아닌 집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성남문화재단은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전시를 위해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청의 소장자료들과 성남 주민들 인터뷰, 역사학자와 사회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했다.

22일 오후 2시~23일 오후 8시 성남시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과 오리공원 일대에서는 '제1회 저항예술제-예술대단지사건(Artist Or Untouchable)'이 열린다. 광주대단지사건을 모티브로 한 저항예술제의 취지는 정부의 무계획적 국가정책, 예술 말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반발해 전국에서 모여든 예술가들이 저항과 상상으로 미래를 점거하는 예술저항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대단지사건'이란 제목을 달았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음악, 거리극, 퍼포먼스, 버스킹 등 50여 팀의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김민준 기자 mjkim@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광복 70년 기념 다양한 무료공연 '풍성'

'베테랑' 개봉 첫 주 276만 '암살' 1000만 카운트다운

한국영화 두 편이 여름 극장가 흥행을 이끌고 있다. '베테랑'은 개봉 첫 주말에 276만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다. '암살'은 1000만 영화 등극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5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베테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주말 3일 동안 191만6509명의 관객을 모아 높은 흥행 폭발력을 보여줬다.

'암살'은 개봉 20일째인 10일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됐다. 3위와 4위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과 '미니언즈'가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문화계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무료 행사로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신시컴퍼니는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 한 '아리랑'에 2000명의 시민을 무료 초청하기로 했다. 뮤지컬 '아리랑'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담아낸 작품. 이번 초청 이벤트는 광복 70년을 맞아 국민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뮤지컬 '아리랑'은 안재욱, 서범석, 김성녀 등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와 생동감 넘치면서도 섬세한 한국적인 음악, 가장 한국적인 내용을 담으면서도 모던함을 잃지 않는 무대로 언론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초청 무대는 15일 오

뮤지컬 '아리랑' 2천명 초청
서울시향·국립국악원 공연

후 7시30분, 19일 오후 8시 공연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1인 2매 관람권을 증정한다. '아리랑'은 9월 5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1일 정오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에서 '우리동네 음악회'(사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최수열 서울시향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부악장 웨인 린 등 서울시향 단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하이든 '교향곡 1번'과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신의 날)',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라벨의 '서주와 알레그로' 등 18세기 바로크 음악부터 19세기 프랑스 작품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와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은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오르간 주자로 나서 풍성함을 더한다. 선착순 무료 입장이다.

국립국악원은 15일 '토요명품공연'을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우면산 별밤축제 '별별연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날 '토요명품공연'은 피리산조, 창작실내악 접동새, 궁중무용 공막무, 설장구춤 등 정악과 민속악을 비롯해 궁중무용과 민속춤 등이 펼쳐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4~16일 기획특별전 '폴란드, 천년의 예술'의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가창력 끝판왕 총출동

◆ JTBC '백인백곡-끝까지간다'

오후 9시 40분

여름 특집으로 6팀의 초특급 게스트가 '보컬리스트 대전'에 출동한다. 꿀 성대 김형중,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 열정적인 보컬 김태우, 발라드 황태자 테이, 솔로로 돌아온 김연지, 차세대 보컬 유성은이 우승을 놓고 가창력 대결을 벌인다. 번외 대결도 다채롭다. 이수영

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개그 필살기를 공개한다.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 테이는 시대를 초월한 화장법을 선보인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친숙한 콩나물의 낯선 변신이 펼쳐진다. 그동안 밥상 위의 조연이었던 콩나물이 백종원의 손길이 닿자 강렬한 비주얼을 가진 주인공으로 거듭난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편. 빅스의 엔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정은지에게 쪽지를 건넨다. 쪽지를 받은 정은지는 당황하지만 엔은 A4용지까지 동원해 대화를 시도한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내 몸을 해독하는 약이 되는 '매운맛'을 공개한다. 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줄 '매운맛'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과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매운맛'의 비밀을 파헤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90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89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42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6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6회)	30 생생정보 55 400회 기획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62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광복70년 특별기획 슈퍼코리아의 꿈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16회)	00 화정 (36회)	00 미세스캅 (4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백 투더 퓨처2>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명강의 스페셜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광복70주년 특집 PD수첩	15 18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그리고 싶은 것>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뮤비뱅크 2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9회) (재)	20 집밥 백선생 (12회) (재)	00 한식대첩 3 (12회)			◆ 프로야구 (18:30) SK vs 롯데 (SPOTV+) 한화 vs KT (MBC SPORTS+) NC vs 넥센 (SKY SPORTS) 삼성 vs LG (SBS SPORTS) 두산 vs KIA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30회) (재)	30 오늘 뭐 먹지? (68·41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8회)	00 무비스토커 (5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91회)	30 유미의 방 (7회)	00 리얼 앵그리 버드	40 적인걸2:신도해왕의 비밀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8회)	40 집밥 백선생 (13회)	00 올리브쇼 2015 (19회)	00 아프리카의 영원한 적, 사자 vs 버팔로		
22시			00 2015 테이스티로드 (25회)	00 빅데이터 마이닝 (5·6회)	00 주온:끝의 시작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6회)	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회)	00 오늘 뭐 먹지?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 초대형 무적전함	50 터널 3D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9회)	20 현장토크쇼 TAXI (391회) (재)	00 로맨스가 필요해 2012 (3회)	00 와일드 순간포착(2) (16회) 30 이것은 실화다 (14회)		

유희관, 20년 만에 토종 좌완 20승 '가시권'

LG전서 첫 15승 고지 우뚝
생애 첫 태극마크도 유력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좌완 선발 유희관(29·사진)이 20년 만의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유희관은 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4개 포함 1실점으로 올 시즌 가장 먼저 15승 고지에 올랐다. 다승 부문에서 2위인 NC의 에릭 해커와 2승 차로 벌렸다. 평균자책점도 3.16으로 낮아져 이 부문 3위에 올랐다. 4월 28일 KT전부터 11연승을 달리고 있다.

유희관은 가장 느린 공으로 가장 빠르게 15승을 달성했다. 직구가 고작 시속 130km에 그치고 변화구는 시속 100km를 간신히 넘는다. 다른 선발 투수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 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제구와 볼 배합으로 '느림의 미학'을 완성했다. 매 투구 때마다 스트라이크 존에 아슬하게 걸치는 까다로운 공을 던져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데다가 직구와 변화구 투구시 폼에 변화가 없어 어떤 공을 던질지 예측이 어렵다.

유희관은 20승 달성에 단 5승 만을 남겼다. 두산이 현재 45경기를 앞두고 있어 22경기에서 15승을 거둔 유희관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되지만 않는다면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20승 달성이 유력하다.

만약 20승을 달성하게 된다면 20년 만의 토종 좌완 20승 투수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앤디 밴헤켄(넥센)이 20승을 거둔 바 있지만 국내 선수로 한정하자면 2003년 정민태(당시 현대) 이후 20승 투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선발 20승과 토종 좌완으로 범위를 좁히면 1995년 이상훈(당시 LG)이 마지막이다.

이 같은 활약 덕분에 유희관은 프리미어12 국가대표팀에 승선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올 시즌 다승왕이 유력하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일본 방송사에서는 유희관을 유력한 일본전 선발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생애 첫 태극마크도 유력하다.

시즌이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유희관의 기록 달성에 있어 한 가지 변수는 발목 부상이다. 지난 6일 러닝 도중 왼쪽 발목을 다치며 현재 100% 컨디션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 다행히 내딛는 발이 아니라 등판은 가능하다.

유희관은 "공을 던질 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 다소 통증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도중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발목 부상이 악화된다면 본인의 가장 큰 무기인 제구가 흔들릴 수 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강정호, 시즌 9호 3점포

LA 다저스전 승부 쐐기포
추신수, 안타·득점 1개씩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LA다저스와의 대결에서 시즌 9호 홈런을 쳐냈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치러진 LA다저스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7회말 2사 1, 2루에서 조엘 페랄타의 시속 145㎞짜리 초구 직구를 3점 홈런으로 연결했다. 3타수 1안타(1홈런) 2사구 3타점 2득점을 기록해 시즌 타율 0.293(300타수 88안타)을 유지했다.

강정호의 활약 속에 피츠버그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다저스를 13-6으로 제압하고 3연전을 싹쓸이했다.

이틀 만에 출전한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득점 1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39(364타수 87안타)를 일주일째 유지했다.

텍사스는 시애틀에 2-4로 패하면서 승률이 정확히 5할(55승 55패)이 됐다.

/하희철 기자

'유럽 영건' 셰인 로리, 미 무대 첫 우승

브리지스톤 골프 11언더 정상

유럽골프의 '영건' 셰인 로리(28·아일랜드)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을 제패하며 미국 무대 첫 승을 신고했다.

로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CC 남코스(파70·7400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공동 선두에 2타 뒤진 3위에서 시작한 로리는 합계 11언더파 269타를 적어내며 역전 우승에 성공해 153만 달러(17억8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공동 선두였던 저스틴 로즈와 짐 퓨릭은 공동 3위(7언더파)로 밀렸다. 버바 왓슨이 이날 4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로리보다 2타 모자란 준우승(9언더파)을 차지했다.

아마추어 시절이던 2009년 유럽투어 아일랜드 오픈에서 우승한 뒤 곧바로 프로로 전향한 로리는 2012년 유럽투어 포르투갈 마스터스에서 승수를 추가했다. 그러나 미국 무대로 옮긴 뒤에는 지난 6월 열린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거둔 공동 9위 이외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미국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는 공동 6위(5언더파)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안병훈(24)은 공동 57위(9오버파), 배상문(29)은 공동 63위(11오버파)로 대회를 마쳤다.

/하희철 기자

슈틸리케 "선수들 자랑스럽다"

동아시안컵 우승 이끌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7년 만에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끈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9일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북한과의 3차전에서 0-0으로 비기며 자력 우승을 놓친 슈틸리케호는 이어 열린 일본-중국전이 1-1 무승부로 끝나자 우승팀만 올라설 수 있는 시상대에 섰다.

슈틸리케 감독과 주장 김영권이 함께 우승컵을 높이 들자, 선수들과 코치진 모두는 양 손을 위로 올려 환호했다. 이어 선수들은 관중석의 붉은 악마 응원단 앞에 서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대회 내내 보내준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들에게 경기가 끝나고 얘기했는데 우승을 하든 준우승을 하든,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다"며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다.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고 싶다. 골키퍼를 제외하고 필드플레이어 20명 중 18명에게 60분 이상의 시간을 줬다.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해줬다"고 칭찬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힌 장현수는 "자력 우승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승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기뻐했다.

수비상을 받은 주장 김영권은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하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슈틸리케호는 10일 귀국해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이어 오는 31일 재소집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2~3차전을 준비한다. 라오스전은 9월 3일 화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레바논전은 9월 8일 원정으로 펼쳐진다.

/김민준 기자 mjkim@

2015 동아시안컵에서 7년 만에 우승을 이끈 울리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Shin kyuk-ho, proceeds for quasi-incompetent?”

신격호, 한정치산자 선고 추진?

The Lotte Group continues to assert that general president Shin Kyuk-ho has lost control of his mental faculties. Support from Lotte Group's Japanese finance circles seemingly verifies this claim, and points to moves by the Lotte Group to forcibly distance itself from president Shin by declaring him incompetent in the eyes of the law.

Visit of Shigemitsu Hatsuko who is president Shin's wife, is being viewed as part of the legal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are officially deemed quai-incompetent. According to Japanese Civil Law, only a spouse or kin of direct lineage may register an individual for legal incompetency.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If the claims are verified, the property of the incompetent person passes down either to the spouse or is distributed evenly among the children. If the person of interest is declared quasi-incompetent, however, the property remains their own.

Considering this, it is generally being assumed that Hatsuko will take CEO Shin Dongbin's side in defending his status as quasi-competent.

After all, if president Shin is legally confirmed as quasi-incompetent, control of the Lotte Group will naturally be passed down to one of his sons.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롯데그룹측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제정신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재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신 총괄회장을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국내법상 피한정후견인)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현재 법적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의 방문도 일본 현지 법원에 한정치산 등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민법상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선고자의 재산관리권은 처나 아들 딸에게 사실상 전부 넘어간다.

일본 재계는 하츠코가 신동빈(61)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한·일 롯데는 하츠코와 신 회장의 손에 자연히 넘어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7		1					2
		4	7	8		6		
5	8		3		9			
3							6	
7				5				8
	6							5
			5		4		1	6
		5		2	7	4		
4					1		3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6	2			
4		6		7	3		1	
5		7						
					5			2
		9		1		6		
7			9					
					2			4
	7		1	2		9		5
			6	4				7

스도쿠 정답

6	7	3	1	4	5	8	9	2
9	1	4	7	8	2	6	5	3
5	8	2	3	6	9	7	4	1
3	5	9	2	7	8	1	6	4
7	4	1	9	5	6	3	2	8
2	6	8	4	1	3	9	7	5
8	9	7	5	3	4	2	1	6
1	3	5	6	2	7	4	8	9
4	2	6	8	9	1	5	3	7

3	9	1	5	6	2	7	4	8
4	2	6	8	7	3	5	1	9
5	8	7	4	9	1	3	2	6
1	6	3	7	8	5	4	9	2
8	5	9	2	1	4	6	7	3
7	4	2	9	3	6	8	5	1
9	1	8	3	5	7	2	6	4
6	7	4	1	2	8	9	3	5
2	3	5	6	4	9	1	8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생각 말고 피나는 노력 하시길

희망이 남자 88년 11월 17일 음력 21시10분

Q 작년 8월에 대학 졸업하고, 올봄에 첫 직장에 들어갔으나 주위환경에 의해 몇 달 만에 나오고, 또 다른 곳에 취업이 되었으나 야근을 너무 많이 해 힘들어 퇴사했습니다.

모두 몸이 아프고 견디지 못해 스스로 나왔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 오래 다니려고 맘먹었는데 뜻대로 잘 안됩니다. 전자공학을 전공 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사무직으로 직장을 구하려 합니다.

A 운칠기삼(運七氣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사가 운이 따라야 성공 할 수 있다는 말로 이런 말을 가벼이 여기기보다는 운을 믿으며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뭐가 되도 되니 성실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귀하는 갑인일주(甲寅日柱)로 생일주(生日柱:태어난 날)가 일덕(日德)이니 성격이 착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품이지만 우유부단하여 생각이나 판단이 흔들립니다.

금수(金水)기운이 부족하여 지구력이 강하지 않으니 많은 생각을 줄이고 달리기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려보세요. 어렵다 안 된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착하면 이직이 습관화되고 주체적으로 궁리하여 연구 성과나 재정적인 성취를 보기 어렵게 되어 서글픈 인생살이가 되고 고립을 자초합니다.

사주고전명리서 '삼명통회'를 인용하면 '무릇 질병은 오행의 불조화(不調化)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각 오행이 흉함을 당하면 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갑목(甲木)은 양(陽)에 속하고 동량의 재목이 되며 움직임을 싫어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나무의 성장이 멈추는 겨울에 도끼로 갑목을 다듬어 동량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갑인(甲寅)생일주는 갑(甲:큰나무 숲), 인(寅:호랑이)으로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니 남자의 경우 남다른 경쟁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성격에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표를 씁니다.

외양내음(外陽內陰)으로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아 속으로 수심이 가득한데 바꾸어 가야합니다. 취업 운은 천간(天干)에서 같은 오행끼리 다투는 형상이며 올해는 귀문살(鬼門殺: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 상태)이 작용하여 다른 곳을 가도 마음이 안정 안 되기에 정서적으로도 힘들다고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1일 (음 6월 27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오늘 모든일이 잘 풀립니다. **60년생** 너무 자만해선 안됩니다. **72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49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61년생** 세상 어느 구석에도 갈 곳은 없습니다. **7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85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0년생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입니다. **62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4년생**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세요. **86년생** 낫 들고 기억 자도 모릅니다.

51년생 귀인이 귀하를 찾아왔으나 귀하는 보내고 말았습니다. **63년생** 효도하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75년생**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 되었습니다. **87년생**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52년생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64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76년생** 게으름 피우면 귀하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88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53년생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65년생**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77년생** 강한 책임 감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89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면서 집중력을 높이세요.

54년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66년생** 일을 잘 성공시켜 보고자 했으나 까딱 잘못 됩니다. **78년생**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90년생** 음식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55년생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67년생** 상상이외의 지출이 생길수 있으니 자제하며 행동하세요. **79년생**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90년생** 좋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56년생 순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0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92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것입니다.

57년생 걱정없이 편안한 날입니다. **69년생** 뾰족한 것을 조심하세요. **81년생** 승진운이 있습니다. **93년생** 만족감에 유유자적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58년생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70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82년생**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4년생** 대중교통 이용을 조심하세요.

59년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83년생** 뭐든지 양보하면 길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미국소송과 증언녹취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재판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다. 승패에 대한 전망도 쉽지 않다.

반면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사자는 승패에 대한 전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확한 평가는 당사자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소송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내가 늘 아쉽게 느끼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증거자료를 스스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요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쉽지 않다. 증인신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증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므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확실치 않다. 따라서 승패에 대한 전망도 쉽지 않다.

한편 미국소송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포지션(deposition)이다. 데포지션을 흔히 '증언녹취'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증언녹취는 미국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이다. 이것은 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판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다.

증언녹취를 하는 경우 각 질문과 증인의 대답은 속기사에 의해 기록되고 영상 녹화가 이루어 진다. 이 기록은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쌍방 변호사들에게 보내진다. 증언녹취를 하는 경우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되고, 답변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언녹취를 통해서 쌍방 변호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증인에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쌍방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증언녹취는 변호사가 상대방과 자신들 주장의 강점과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증언녹취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증언녹취한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사용된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증언녹취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실에 가깝게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들은 사건의 승패에 대해서 전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판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송의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 이것은 증언녹취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언녹취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분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증언녹취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社說

상고법원 설치보다 급한 것

최근 우리나라 법조계 숙원 사업의 하나가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법원 상고사건이 1991년 1만건에서 지난해 3만7600여건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대법관은 늘어나지 않기에 나온 방안이다.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 그런 가운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상고법안 설치를 지지하는 주장이 발표되고 있다.

상고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 심리와 판결은 늦어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분명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의 수효를 늘려야 마땅하다. 다만 대법관을 늘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고법원을 설치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신뢰다. 9일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는 사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끝에서 4번째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칠레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참으로 낯뜨거운 지표이다. 국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왔다. 권력과 재벌에는 허약한 반면 약한 국민들에게만 준엄하다는 인식이다. 그것이 단순히 '피해의식'이라고 폄하하기도 어렵다. 사실 사법부가 조금만 달랐어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

사법부가 왜 이토록 불신을 받게 됐을까? 아마도 사법부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급한 것은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법원 설치가 아니다. 그것도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이나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상된 '막장드라마', 롯데家 싸움

기자 수첩
김 성 현
<생활유통부 기자>

"가족과 롯데를 나눌 생각이 없습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말이다.

현재 롯데가(家)는 '골육상쟁(骨肉相爭)'으로 기업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기업은 물론 일반 주주들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영권을 손에 쥐기 위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있는 패륜아 신 회장, 아버지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마마보이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황제경영을 꿈꾸고 있는 노욕(老慾)의 신격호 총괄회장.

재계 5위의 기업 가문 치고는 너무도 초라하고 흉칙한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삼부자(父子)의 싸움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롯데의 가족 드라마는 더욱 자극적이고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싸움이 깊어질수록 삼부자는 우리 사회에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기자는 지난 6월 중순께부터 롯데의 지분 구조와 관련한 취재를 해 왔다. 이미 재계에서는 복잡한 롯데의 지분구조를 두고 부자(父子) 혹은 형제(兄弟)간의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로 취임한 후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신 회장이 한·일 롯데를 모두 장악했다고 대서특필했지만 본지는 신동빈·동주 형제의 경영권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기사를 작성했었다.(본지 7월1일자)

기사를 쓰면서도 반신반의했지만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현실로 이뤄졌다. 그것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터지기 전에도 막장을 막을 해결책은 있었다. 나누는 것이다. 현재도 해결책은 나누는 것 뿐이다.

지금의 롯데 사태는 한명이 '모두'를 가지려 하며 발생했다. 재계 5위 '롯데'라는 그룹을 나누는 데 아버지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롯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가족은 버려도 좋다는 생각인 것 같다. TV에서나 보던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자신들임을 형제는 자각할 때가 됐다.

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어떻게 대처하나

생활 법률

상대방에게 엉뚱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악덕 채무자가 종종 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를 취소하려면 일단 가압류와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압류와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돼 매매계약을 해제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이 가압류 돼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손해, 임대료 못받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금전·정신적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도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가압류와 가처분 집행취소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럴 능력이 없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취소해주지 않는다. 별도로 가압류와 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한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인 사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일환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류광준 ▷경제분석과장 김병환
■ 병무청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김은순 ▷운영지원과 서창률 ▷병역자원국 노동엽 ▷입영동원국강준식 이영희 ▷사회복무국 장광순 ▷서울지방병무청 선태수
■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겸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 박영일 ▷이대목동병원 QPS센터장 한종인 ▷국제협력실장 김선종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 최희정 ▷진료협력센터장 겸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장 주웅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 전산실장 조도상 ▷홍보실장 김한수
■ 초당대
▷교무처장 윤용현(항공정비학과) ▷학생복지처장 정경은(사회복지학과) ▷홍보실장 배호남(교양교직학부)
■ 서울신문
▷편집국 문화부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김성호 ▷독자서비스국 독자지원부장 이경옥 ▷사업단 사업지원부장 안창섭 ▷사업단 투자개발부장 이장훈 ▷사업단 문화사업부장 전성준

부 고

▲박헌씨 별세, 최재호(사업)·창욱(TBC 대구방송 부장)·재왕(전 대구신문 사장)·성욱(사업)씨 모친상, 신동우(현대자동차 부장)씨 장모상 = 9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1일 오전 7시. ☎ 053-766-4444
▲유세열씨 별세, 강도묵(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씨 장인상 = 9일 오후 6시35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일 오전 8시, ☎ 042-600-6660